

효행자 가족의 부양과 적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regiving and Adaptation in the Families who
Awarded on Filial Piety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金明子
우송정보대학교
강사 金秀妍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Kim, Myung Cha
WooSong Junior College
Lecturer: Kim, Soo Youn

〈목 차〉

- | | |
|-------------|---------------|
| I. 연구목적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관련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regiving and adaptation in families who awarded on filial piety. Using the qualitative methods- in depth interview, genogram, ecomap, participation observation-, 8 families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These families showed very high family solidarity with strong collectivity. Their family role was interchangable and their familiarity was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2)Family members showed similar coping patterns on the basis of their own adaptation. Their coping was inclined toward acceptance especially religious rather than emotional-focused and hardly avoidance coping. (4)Although their economic, emotional and service cares were family-centered with helps from their extended family, household equipment for elder care was not prepared. (5)These families preferred to maintain this condition rather than to be well adapted. It was concluded that to help failed elder's family caregiving, social support program should be complemented in family life enrichment program

for their children, medical care program, equipment rental program for elder in social network, religion program and so on. Social norms for parent-children relation has to be changed to more flexible care pattern. Also more social-emotional support has to be given to these families.

I. 연구목적

한국가족의 가족주의 형성과정은 사회적 요구인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그리고 개인의 삶의 터전이며 목표가 되는 개인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가족의 규범으로 개인의 생활에 내면화 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가족의 규모, 형태, 가족관계는 점점 현대화되어 가는데도 가족생활을 규정하는 규범은 대체로 전통적 가족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효 규범에 대한 가족주의적 경향은 가족부양우선의 가족책임으로 가족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가족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며,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다세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가족의 수직계열화와 함께 가족관계에서의 질적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의 노년인구 증가도 지속적이며, 노령국으로의 진입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신체의 노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으로 지병율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의 반 수 또는 그 이상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노화되는 과정에서 퇴행성 질환이나 신체적 기능의 상실로 인해 노령층의 장애 출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즉 전체 노인 중 노령장애인의 비율은 11%, 전체 장애인 중 노령장애인은 44%이며, 전체 노령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가 68%, 청각장애 21%, 시각장애 9% (통계청, 1997)로 노년의 질병이나 와병은 모든 가족이 수용해야 하는 가족주기상의 일상적인 전이로 가족의 변화와 적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38%의 주부양자들이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으며(Kuypers & Bengtson, 1983), 특히 실제부양자인 중년 여성들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Gatz et al, 1990).

또한 한국의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이며, 특히 전통주의적인 가족중심적 가치관이 개인중심적 가치관에 비해 우세하고, 가족문제의 주요해결책은 가족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연구에서처럼 (이광규외, 1996) 부모의 부양은 아직도 전적으로 가족부양에 의존하고 있다. 가족의 범주로 자녀와 배우자 및 부모·형제까지가 포함되고, 상호 도움을 교환하고 책임감을 수반하는 가족의 理想化현상을 보이고 있어 비록 희생과 인내를 수반하게 되더라도 가족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동시에 가족의 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부모·성인자녀의 동·별거와 관계없이 효규범이 지속적임을 알 수 있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효규범의 변화가 점차 요구되며 사회적 효규범의 변화가 가족관계의 질적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박재간, 1993; 문소정, 1995; 김명자, 1996)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노인부양연구는 부양 행동(김태현, 1981; 전길량, 1993; 육정희, 1996), 부양의식(허훈, 1988; 신수진, 1993; 최정혜, 1997; 서소영, 김명자, 1998)에 관한 연구와 특히 한국 가부장제 하에서 시부모 부양에 대한 상호성 연구(박경란, 1993; 송현애, 1993; 김명자, 1995; 김명자·이윤정, 1995; 김명자·안선영, 1996; 정혜정·서병숙, 1998), 그리고 부양가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육선희외, 1994; 이정연외, 1996; 전길량·김태현, 1996; 홍숙자, 1997). 그러나 한국 부양의 이념적 근거가 되는 효에 대한 연구는 효행자 개인의 가치에만 국한하여 연구하거나 (성규탁, 1985; 1990; 1995; 성규탁·이윤호, 1998), 부양의 상호성에 대한 연구(김명자, 1996)로 경험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효란 사회가 인정하는 문화규범으로서 개인적 가치임에는 분명하나 부모·자녀관계를 규정짓는 것이고 효행동은 구체적으로 부

모에 대한 부양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경험적인 연구보다는 질적연구로의 확대가 필요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가족의 변화 중에서 노부모 부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어려움을 가족원들이 어떻게 힘을 합하여 대처해나가며 적응하고 있는지를 질적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부양이 집중화되고 장기화되는 효행상 수상가족의 부양부담에 대한 적응은 다른 가족주기 전이에서 일어나는 적응보다 개인의 자원은 물론 전체 가족원의 자원을 근거로 한 역동성에 의할 수 있다. 즉 효행상을 수상한 가족의 효행자, 배우자, 그외의 가족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여 이들 가족의 부양과 적응에 관한 분석을 통해 적응기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비슷한 환경 속에서 부양 하는 다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국가족의 문화체계를 이해하고, 한국가족의 장기부양 문제 해결방안에 유용한 시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관련연구 고찰

Aldous (1996)는 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를 가족발달 주기상으로 논의 함에 있어 노년기의 부모와 성인자녀의 상호성은 그 이전 단계에서의 상호적 충성심이나 가족주의적 경향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노부모 부양연구가 발달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계숙, 1998; 전영주, 1998; Aldous & Klein, 1991). 본 연구에서는 효행자 가족의 부양을 지속시키는 여러 변인들을 가족생태학적인 이론에 의해 가족내·외에서 찾고자 하는 동시에 부양모델에서의 위계적 대체모델에 근거하여 동심원적으로 부양자 개인, 가족, 사회관계망으로 확대시켜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부모 동거가족 부양자의 개인적 특성

부양자의 인성적 특성은 이들의 적응기제인 대처

행동으로 나타나 주어진 환경내에서 인내하거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된다. 스트레스 이론에서는 개인의 대처행동이 개인의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족도나 심리적 복지감, 삶의 질 등에 대해 완충효과 (Buffering effect) 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다 (Gatz et al, 1990; Markiewicz et al, 1997; Devries et al, 1997). 특히 한 가족 내에서 가족원간의 대처행동에 따라 각 가족원의 만족도나 적응의 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Pruchno, 1997) 에서처럼 부양자의 대처행동은 부양자 개인의 적응에는 물론 다른 가족원들의 적응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피부양자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경우와 또 본인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상황이 변화가능한 경우에 따라 개인의 대처행동에 대한 효과가 다를 수 도 있지만 (Kling et al, 1997) 대처행동은 중요한 개인적 자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의 주부양자는 딸보다는 며느리의 비율이 월등이 높고 대체자원이 많지 않으므로, 부양자가 어떻게 부양부담을 수용하는가에 대한 대처행동의 차이는 중요한 부양자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부양자의 효도관은 중요한 적응요인으로(Strong, 1984) 한국에서는 문화적인 규범으로서의 효나 효의 무감에 의해 부양자의 부양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적으로 효행자가족의 경우 효도관을 순종,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경제적 부양, 입신양명, 사후제례, 현실에 맞는 효 (김명자, 1996) 로 나누어 볼 때, 전체적으로 높은 부양행동과 의식을 갖고, 현실에 맞는 효라기 보다는 희생을 요구하는 이상적인 효를 추구하고 있다 (김명자, 김수연, 1999). 그러나 한국 와병노인가족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감은 공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함께 성숙된 효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이 아닌 효의무감에서 비롯되는 부담감이므로 확대가족의 도움과 부양자 개인의 효도관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윤로, 성규탁, 1998), 효의무감이나 부양의식이 높은 경우 실제적인 부양행동은 증가하나 (최정혜, 1997; 서소영, 김명자, 1998) 부양에서 오는 부담감은

커진다는 연구들도 있다. 그러므로 노인 동거 부양 가족의 개인 효도관은 가족의 적응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2. 노부모 동거부양가족의 가족특성

Pyke & Bengtson (1996) 은 와병노인 가족부양의 질이나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의 결속도를 보면서, 가족원의 개인적 혹은 집합적 가족성향이 가족의 결속도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에 대한 가치나 의미, 가족관에 의해 집합적 가족성향이 결정된다고 할 때, 가족중심의 집합적 특성을 갖는 한국가족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관련시켜 문화적 규범인 효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한국효행자의 가치가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결속도를 통해 부양행동으로 구체화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 동거 부양가족의 적응에서 가족간의 화합이나 도움등은 부양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피부양자와의 관계도 부양가족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부모의 부양에서 부양자와 피부양자간의 친밀감 결여가 주된 부양스트레스가 될수있다. 효행자 가족의 피부양자는 일반적으로 와병이며 고령의 만성질환노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김명자.김수연,1999) 자원이 빈약할 수 있으나 과거에 가족원과 나누었던 관계성이나 보은의 의미로서, 효에 대한 책임감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리고 현재 부양자에게 보여주는 감사함이나 상호성등이 중요한 가족결속도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족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경제상태나 주거형태, 와병노인 부양에 필요한 의료설비의 보유 및 사용가능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노부모동거 부양가족의 사회관계적 특성

노인동거 부양가족의 사회 특성은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형제, 자매나 친족과 같은 확대가족의 도움이나 사회적인 지원들이 부양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관계망은 제도적인 것들과 사회정서적

인 것으로 구분되어 중요한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며 가족이외의 친족이나 이웃, 지역사회의 도움과 더 넓은 의미로 국가적 정책이나 제도 또는 효규범등과 같은 문화규범적 특성은 개인과 가족을 사회의 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개인의 부양행동에 대한 사회의 적절한 관심과 보상등은 중요한 부양결정 요인이 될 수 도 있으며, (Choi, 1993; 송현애,1993; 성규탁,1995) 특히 전적으로 가족에게만 와병노인의 부양을 전담케 하는 한국의 경우 사회의 재정적 지원은 부양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의 제도적 지원에는 재정지원이나 재가복지사업 등의 서비스적 지원이 있으며, 사회정서적 지원에서는 효행상을 수여하거나 이들 가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격려하는 일 등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사회적 지원이 열악하여 한국의 노인 부양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차홍봉, 1998).

우리나라의 효행가족연구에서는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빈번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사회적 프로그램의 미비와 개방성의 문제로 효과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며(김명자.김수연,1999), 국가기관이나 민간 복지단체에서 매년 어버이날 시상하는 효행상은 그 규모에 있어서 매우 미약하다고 하였다.

4. 효행자 가족의 적응

가족생활주기를 통해 어느 가족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발달적 위기 및 가족원의 변화는 새로운 가족의 적응을 필요로 한다. 변화에 대한 적응의 수준으로 기능적, 역기능적인 가족이 될 수 있으며(Kinston et al, 1987) 초기의 부모됨에 대한 전이와 마찬가지로 가족원의 노년기 진입과 이에 따른 부양과 가족생활의 변화는 가족의 역동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가족의 적응이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식하는 삶의 질이나 만족도의 수준으로 각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노력에 따라 적응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Compell et al 1976). 그러나 가족의 적응을 단지 기능적인가 역기능적인가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며,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응의 정도를 위기에 직면하여 해체나 분열 없이 가족의 기능을 수행, 유지하는 상태로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행자와 그들 가족의 적응을 주관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심리적 복지감과 함께 이들이 부양의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나가고 있으며, 가족간이나 환경과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상호성과 기능성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효행자 개인은 물론 가족의 적응을 분석해 보고자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가족은 모 복지재단에서 1996년도와 97년도 실시한 효행상 수상 추천자 가운데 수상경험이 있는 8 사례를 선정하여, 이들 가족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족간의 상호작용과 함께 적응 특성을 면접과 관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I 효행자가족의 부양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I-1 효행자가족의 가족 및 사회 관계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I-2 효행자가족의 부양부담은 어느정도인가?

연구문제 II 효행자가족의 적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구문제 II-1 효행자가족의 대처행동,효도관,가족결속도는 어느정도인가?

연구문제 II-2 효행자가족의 심리적만족감은 어느정도인가?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질적연구에서는 관찰과 면접을 통하여 연구자가 분석을 하되, 연구내용에 적합한 척도를 구성하여 면접을 하여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 (Gubrium & Sankar, 1994). 또한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심층면접을 이끌어내는데 고도의 연구자 자질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된 설문내용이나 진단서등을 이용하여 담론보다는 다양한 질적연구의 방법을 사용할 때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방법 중에서 심층면접법은 물론 참여관찰법, 그리고 가족 구술법등을 사용하여 연구자와 대상자가 족과의 일치를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대처행동과 가족결속도, 심리적만족감에 관한 질문지를 구성하여 면접시 사용하였으며, 가족결속도는 Bengtson(1996)의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의 의미나 부양에서의 상호성, 피부양자에 대한 일치감이나 부양행동, 집합주의적 가치등에 대하여 면접하였다. 개인의 대처행동은 많은 연구를 통해 문화적인 차이가 적다고 보고되고 있는 Pruchno & Resch (1989)의 척도를 해석하여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수용적, 정서적,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으로 나누었다. 심리적만족감에 관한 것은 Bredburn Affect scale 과 전반적 삶의 만족감, 우울감등을 종합적으로 질문하였으며 긍정적인 만족감과 부정적 정서인 우울감등을 함께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 가족 생활사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Bowen의 이론을 근거로 개인이나 가족의 적응이나 문제등을 가족의 체계속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계도(Genogram) 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생태도를 (Hartman, 1979) 면접과 관찰을 통해 구성하였다.

면접은 1998년 7월 10일부터 8월 30일 까지 효행자와 배우자, 피부양자, 자녀 등과 3세대를 이루고 특히 배우자가 생존하며 부양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 중에서 면접이 가능한 대상을 미리 전화로 선별하여 정한 후, 방문일정을 잡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도를 설명하여 효행자는 물론 배우자, 자녀, 친구 등이 함께 면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와 가계도, 생태도는 면접 중에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양해를 구한뒤 녹음하였다. 심층면접에 의해 얻어진 내용은 Strauss 와 Corbin(1991)의 근거이론적 접근법에서 제시한 개방적 부호화 과정을 사용하여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참여관찰을 통

해 부양의 어려움과 주거형태나 의료기기의 보유상태 및 피부양자의 상태등을 분석하여 기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연구대상자의 특성

〈표 1〉 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은 8가족으로 1사례를 제외하고(97년 11월 서부 사망) 모두 노부모와 동거중이며, 효행상을 받은 부양자의 경우 남자가 3명 여자가 5명이다. 연령은 40대가 2명, 50대가 3명, 60대가 3명이며, 노인 부양에 중요한 자원이 되는 배우자의 경우, 사망한 경우가 1사례(98년 6월 교통사고로 사망) 와 장애인인 경우가 1사례(지체장애 3급) 이나, 특히 3명의 남자 효행자인 경우 실제적 주부양자는 그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배우자도 효행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으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직업은 주부가 4명, 교사가 2명(1명은 퇴직, 96년), 행상 1명, 일용직 1명이며, 교육정도는 무학 및 초졸이 2명, 고졸이하가 3명, 대학이상이 3명이며, 가족내 지위는 장남이 3명, 외며느리가 3명, 둘째 이하 며느리가 2명이었다. 가계도 분석을 통하

여 원가족 지위를 보면 거의 모두 형제가 많은 집안의 자녀임을 알 수 있었다.

건강상태로 본인의 경우 3명이 관절염과 후두염, 신경성 혈압, 우울증등의 지병이 있다고 하며, 5명의 경우는 건강하다고 하였으며, 배우자인 경우 4사례는 건강하다고 하였으나 3명의 경우, 지체부자유자와 신경성 위염, 신경성 혈압증상을 갖고 있고, 1사례의 경우 2개월전에 사망하였다. 이들은 오랜 부양으로 신경성에 의한 질병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 건강하다고 하는 경우에서도 자신이 아프면 이일을 해나갈 수 없다는 긴장감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 피부양자의 부양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도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1사례를 제외한 7사례의 경우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3가족은 부부 모두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2. 효행자 가족의 부양특성

1)효행자의 가족 및 사회관계망

연구문제 I-1과 관련하여 〈표 2〉에서 효행자 가족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우선 피부양자의 특성 중에서 연령이 80대가 8명이고, 90대가 3명, 100 대가

〈표 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효행자 -주부양자	성별	연령	건강	직업	교육	가족내지위	원가족 지위	배우자상태	종교
1(L)-본인	여	51	양호	주부	초졸	막내며느리	3남5녀중 네째	건강(51)	기독교
2(K)-본인	여	51	양호	주부	고졸	외며느리	2남4녀중 다섯째	건강(51)	불교
3(L)-본인	여	44	양호	주부	고졸	외며느리	2남3녀중 세째	지체장애3급(47)	기독교
4(G)-본인	여	67	관절염	주부	대퇴	외며느리	1남4녀중 둘째	건강(67)	무
5(B)-본인	여	44	우울증	일용직	중졸	둘째며느리	3남2녀중 다섯째	건강(48)	기독교
6(J)-배우자	남	64	양호	행상	무학	장남	5남1녀중 첫째	신경성위염, 우울증(61)	천주교
7(W)-배우자	남	56	후두염	교사	대학원졸	장남	3남2녀중 세째	신경성혈압(56)	불교
8(L)-여동생	남	67	양호	교사퇴직	대졸	장남	4남2녀중 둘째	사망(2개월전)	기독교

〈표 2〉 효행자의 가족특성

효행자	피부양자 연령	피부양자 건강	관계	가족구성	동거기간 (와병기간)	주거보유	주거상태	경제상태 (만족정도)
1	95세	노환, 청각장애	시모	시모, 부부, 아들1	30년 (5)	전세	주택2층	중(만족)
2	83세	노환, 치매	시부	부부, 딸2, 아들1	25년(8)	자가	주택	중(만족)
3	81/81세	중풍, 치매	시부모	시부모, 부부, 아들1, 딸1	18/7년 (15/4)	자가	연립주택	하(불만족)
4	91세	노환	시모	시모, 부부, 딸1	10년(3)	자가	아파트	중(보통)
5	83세	중풍	시모	시모, 부부, 딸3	17년(15)	자가	아파트	중(보통)
6	87/108세	노환, 치매	모/조모	조모, 모, 부부	45년(8)	자가	연립주택	하(불만족)
7	85/84세	치매, 노환	부/모	부모, 부부, 아들1, 딸1	30년(1)	자가	주택 3층	중(만족)
8	89/90세	노환	부/모	부모, 본인, 여동생	18년(3)	자가	아파트	중(만족)

1명이었다. 피부양자의 건강상태는 중풍이나 치매등의 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5명, 노환이 6명, 청각장애 1명이며, 두개의 증상을 함께 보이기도 하여 대부분의 피부양자가 효행자 가족에게 매우 의존적이며, 2가지 이상의 부양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부양기간이 길거나 (평균 21년) 와병기간이 길어서(평균 7년) 부양의 어려움이 장기적임을 알 수 있다.

7사례의 가족들은 결혼 후 계속해서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어 자녀의 출산이나 산간, 양육, 그리고 집안일에 피부양자가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손자녀의 양육에 참여하여 손자녀와의 관계가 유난히 친밀하다. 가족구성은 효행자 부부와 노부모 2대 가족이 1 사례, 3대가족이 4사례, 노부모가 돌아가신 가족이 1사례이며, 4대가족이 2사례로 자녀가족이 해외근무로 분가하여 잠정적 3대가족을 이루고 있다. 또한 부모 중에서 1인만을 부양하는 가족이 4사례이고, 부모 모두를 부양하는 가족이 3사례이며, 모와 조모 2세대를 부양하는 가족이 1사례로 피부양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4사례나 되었다.

주거환경과 경제적 상태를 보기 위해 주거보유 상태를 보면 7사례가 자가이고 1사례가 전세이나 현재 조합아파트를 짓고 있는 중이며, 주관적인 경제상태

는 2사례의 경우 매우 빈곤을 느낀다고 하였으나 나머지 사례에서는 중이상 만족한다고 하였다. 주거설비와 관련된 주거상태를 보면 아파트가 3가구, 연립이 2 가구, 단독주택이 3가구이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등은 평면식 주거이기는 하나 3층이나 2층에 거주하고 있어 노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며, 화장실을 모든 가족이 함께 쓰고 있어 실제로 대소변 수발이 모두 노인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택인 경우에도 화장실과 목욕실을 노인방 옆에 따로 둔 사례가 2사례이나 수발을 위한 의료기기나 편리용품이 거의 없었다. 즉 훨체어나 보청기, 노인용 변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TV이외의 문화시설이 거의 없어 집에서만 거주하는 노인들의 하루생활이 무료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치매노인의 경우 주부양자가 외출시에는 밖에서 방문을 잠그도록 되어있어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표 3〉에서 효행자 가족의 사회관계망을 살펴보면, 이들 가족은 사회시설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는 있지만 현재 사용하지는 않으며, 노인 부양과 관련되어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가정은 한 사례도 없었다. 모든 가족의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이웃과의 빈번한 접촉이 있으나 실제적인 부

〈표 3〉 효행자 가족의 사회관계망

효행자	거주 기간*	친족,이웃의 도움	사회프로 그램 이용	복지지원 정도	효행수상경력 및 수여기관	노인복지에 관한 정보개방성
1	30년	육촌동서,큰아들가족, 친구,이웃	없음	노령수당	지역동호회(부부), 동회	잘모름
2	10년	시누,큰딸가족,이웃	없음	노령수당	구청장,시장, 민간복지재단	치매노인시설유무정도
3	15년	이종6촌형제,이웃	신방	노령수당	교회	치매노인시설,장소, 비용정도
4	40년	시누,친구	없음	노령수당	구청장,시장	노인시설유무,노인용품
5	14년	형제,이웃	없음	노령수당	구청장	잘모름
6	10년	시누,이웃	없음	노령수당	구청장	노인시설유무
7	30년	형제	노인정	노령수당	구청장, 민간복지재단	재가복지사업,노인시설
8	40년	형제	신방	노령수당	시장,민간복지 재단(부부)	재가복지사업,노인시설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양과 관련된 도움은 친족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특히 자녀가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부양을 돋고 있었다.

효행수상경력이 한번 이상이며, 가족 중에서 효행상을 수상한 가족도 2사례나 된다. 이웃에 효행가족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유지가 되거나 이웃의 관심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4사례의 경우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지역사회 의 프로그램이 건강하거나 연령적으로 좀 더 젊은 노인에게 개방적이기 때문이며,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3사례의 경우에도 경로당, 종교단체의 프로그램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적 부양에는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았다.

가족과의 상호성에 비하여 효행자가족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은 덜 빈번하며, 사회정서적인 교류가 빈번한데 비해 도구적 교류는 덜하였다. 특히 이들 가족의 노인이 와병노인이어서 더욱 제한적이며, 친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이며, 가

족과의 경계가 뚜렷하였다. Eco Map 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가족영역과 친족영역과의 관계가 친밀하며, 효행자 개인적으로 종교기관과의 관계가 친밀하기도 하다. 친구나 이웃의 영역에서는 관계를 맺고 있으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며, 친족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원해진 사례도 있다.

2) 효행자 가족의 부양부담

연구문제 I-2에서와 같이 효행자 가족의 부양부담 정도를 알아보고자 주부양자와 자녀 및 배우자를 면접한 결과, 비록 효도관이 높은 효행자 가족이긴 하지만 와병 중인 노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가족들은 자원의 변화와 함께 여러가지 부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서비스부양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부담을 느끼며 주부양자의 시간적 제한으로 개인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집안에 부양해야 할 노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부담을 갖으며, 배우자나 자녀들의 경우에도 부담감이 항상 존재한다. 친족이나 이웃과의 상호작용에서 노인이 계시는 집이라 집안

의 대소사 일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조상 제사의 역할도 맡고 있어 효행자와 주부양자의 건강부담이 누적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행상 수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도 함께 면접하였으므로 효행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면접에 참가한 가족 모두의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일이 많아 서예요. 우리 남편 형제가 5명인데 일년에 제사, 명절, 생신 하다보면 큰일이 계속되죠. 어떤 땐 배추를 10통이나 사야 할 때가 있어요. 평생 뭐 배우려 가거나 운동하러 다니는 것 모르며 살았죠. 요즘엔 남편이 타지에서 근무하니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동차로 모시고 갈 수 없어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이 보통 어렵지 않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니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사례 7번 가족의 85/84세 시부모 부양 며느리)

…열손가락 짓무르지 않을 때가 없어요. 두분이서 함께 저러시니. 하지만 노인용 기저귀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내요. 큰이불은 세탁기에도 들어가지 않으니 제가 직접 빼는 수 밖에 없어요. 시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고(사례 3번 가족의 81/81세 시부모 부양 며느리)

…할머니 대변을 치울려면 속이 메스꺼워 냉장고에 항상 막걸리를 넣어 놓고 있어요. 그거 먹으면 좀 나아요. 요즘 병원에 다니는 것도 다 신경성이라고 합디다. 하지만 누가 나대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아무리 아파도 노인이 3사람이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나죠…(6번 사례 가족의 시조 모 부양 며느리)

…저희 시댁은 좀 특별해요. 처음 시집와서는 참 힘들었어요. 여름휴가에 25명이 함께 휴가를 갔는데, 음식을 준비하면서 참 대단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얼마전에 돌아가셔서 바늘방석이예요. 저희들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으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고모님에게만 맡기는 것도 도리가 아니고, 어머님 역할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니 선뜻 서울로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걱정이예요. 오셔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

르겠구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겠어요(사례 8번 가족의 89/90세 조부모 부양 손주며느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잠깐 나갔다 오면 온 방안에 뚫칠을 하고, 온몸에도 그렇고. 오자마자 눈물이 벌컥 나오요. 하지만 웃 벗어 던지고 해야지요. 밤에 갑자기 나가시면 애들하고 모두 나가 찾으러 가죠. 그래서 방에 문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무엇입니까?) 집에 돌아와 그냥 앉을 수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아요. 누울 수 있다는 것 두요…(사례 2번 가족의 중풍·치매 시부모 부양 며느리)

경제적 부양에 있어 장기부양으로 경제적 지출이 지속적이며, 외병노인에 대한 병원비나 치료비 등으로 생활비의 일정액이 지출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며,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하다고 느끼는 2사례의 경우 가장 절실한 어려움이라고 하였으며 자녀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족도 3가족이나 되었다. 또한 주거공간의 협소로 개인영역을 유지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특히 부부간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들 가족의 주부양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다른 친족, 특히 형제·자매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피부양자를 잘못 수발한다고 비난을 받는 경우이며,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부터 오는 갈등이라고 하였다.

…특별히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못하고, 기력이 떨어지실까봐 일년에 한번 보약을 지어드리죠. 누군가 남의 손을 빌리는 일은 상상도 못해요. 남편이 돈을 못벌게 되어 저라도 직장에 나가야 하는데 두분 뒷바라지 하느라 나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 학비가 가장 문제예요. 이제 대학도 가야하는데…(사례 3번 가족의 중풍·치매 시부모 부양 며느리)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부터 시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남편 월급이 모두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시할머니 아프시고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훌렸습니다. 시누나 이웃이 오면 반갑고 고맙지만 실은 며칠 전부터 걱정해요. 어머님 방 청소

부터 하고, 목욕시키고, 음식준비 하려면 맥이 다빠져요. 잠시 들리는 사람들이니 눈치가 보여요. 손님 이기는 마찬가지죠. 또 이웃에도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방이 3갠데 애 둘이 한방을 쓰고 할머니가 한방을 쓰시고, 막내 딸아와 저희가 한방을 씁니다. 거의 부부생활이란 있을 수 없죠. 평생 이러고 사니까 그냥 그런가 해요. 지금은 큰아이 학비 때문에 저도 벌지 않으면 안되고, 다행히 남편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어머니를 돌보아 드리죠. 그나마 이집 장만하면서 이사 다니는 수고로움이 줄어들었어요. 아프신 노인이 계시다고 하면 집을 얻기가 수월하지 않았거든요... (5번 사례가족의 83세 시모 부양 며느리)

…애 넷에 할머니 두분, 형제들, 항상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쩌다 한번 아이들 저녁주고 둘이 따로 나가 여관에서 만납니다. 할머니께서는 데서 어떻게 그러고 삽니까?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가난이예요. 할머니, 어머니, 시동생들 함께 살다보니 항상 모자라죠. 우리 큰아들 제대로 공부시켰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을텐데.. 미안하죠. (6번 사례가족의 시조모 부양 며느리)

이상에서 효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가족, 특히 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에 대한 정서적부양의 어려움 보다는 서비스부양에서 오는 육체적·심리적 부담이나 시간제한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양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가족은 3가지 부양이 한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어 부양 부담도 복합적임을 알 수 있다.

3. 효행자 가족의 적응

여러가지 부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효행자 가족은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고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가족이 유지되고 있다. 연구문제 II-1에서는 이런 적응의 기제로 가족원의 대처행동과 효도관, 가족결속도 등을 중심으로 면접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1) 대처행동

효행자 가족은 수용적, 정서적, 문제해결적 대처행

동 중에서 정서적이기 보다는 수용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거나 종교에 의지하는 대처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다. 특히 정서적 대처행동 중에서도 회피적 대처행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회피하거나 남에게 돌리려 하기 보다는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이들 가족은 가족간에 서로 비슷한 대처행동을 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대처행동이 비슷하였다. 그러나 정서적 대처행동 중에서 종교에 의지하는 행동은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종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적이에요, 절대 그런건 없습니다. 내가 땀흘리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종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먹고 사는 일은 제게 중요했습니다. 정말 때로 내 일이 힘들어요. 형님이 계신데 왜 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부양해야 하는가 지겨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쩝니까? 그냥 내 일인 거예요.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싶습니다…(사례 3번 가족의 95세 노모 부양 아들)

…어머님 아프신지 20년이 넘었죠! 할머님까지 아프실땐 정말 왜 이러나? 너무 힘들더군요. 게다가 사업도 3 번이나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회피하거나 남에게 떠밀어서는 아무일도 할 수 없고, 그저 제앞에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제가 합니다…(사례 5번 가족의 85세 노모 부양 아들)

…어찌겠어요? 내 몸이 이런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어요. 몸에 상처가 나고 명이 들어도 하루종일 걷는 연습을 합니다. 잊는다고 되겠어요? 처음에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예요. 가족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을 찾고 싶어요.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에 가서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입니다…(사례 1번 가족의 중풍·치매 부모 부양 아들)

…난 어렸을 때부터 내가 혼자 살아갈 수 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땀살림 차리고 나가신 후 저희 집은 너무나 어려웠죠. 그렇지만 제인생을 삶어 하자는 않습니다.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얻어 친정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병수발을 해드렸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주어진 이상 그것은 제 일이고,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부모님 아프시면서 힘들 때 문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내 복을 쌓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사례 2번 가족의 중풍·치매 노부모 부양며느리)

…남편과 결혼하면서 다니고 있던 의대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때부터 주어진 운명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큰아이를 낳고 시작된 관절염도 지금까지 계속되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죠. 후회는 없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제 운명이지요. 제 딸이 아직 결혼을 안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리죠.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피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4번 가족의 91세 시모 부양며느리)

이상에서 효행자 가족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수용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부간에 살아오면서 비슷한 대처행동을 보이게 되어 부양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자신의 의지에 의해 상황이 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부양에 수반되는 모든 어려움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대처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또 하나 특징적인 대처행동으로는 종교에 의지하는 일인데 이들은 자신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으나 종교적 힘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줄이거나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 효도관

효행자 가족의 효도관은 현실에 맞는 효라기 보다는 이상적인 효를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자신이 만족할 만한 효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규범 속에서 그동안 어려운 상황하

에서 행해지는 효행만을 강조해온 나머지 어려운 부양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죄스럽다고 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양의 현실속에서 일관된 행동을 지속시키기가 어렵고, 부양의 어려움으로 가족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효에 대한 순수성을 상실했다는 자책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들이 효행자인 경우 주부양자인 며느리에 비해 더욱 그렇다.

이들 가족의 효도관은 가족에 대한 의미로 까지 확대되어 가족화합과 함께 더 나아가 친족이나 이웃에게 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사후 제례를 중요한 효행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주부양자가 며느리인 경우 원가족 부모에 대한 효도관도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모에 대한 정서가 지속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효행은 생활 속에서의 부양행동으로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부양행동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부양의 어려움과 가족간의 갈등을 갖고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마음이 불편해요. 그저 내가 옆에서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주말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님 모시고 목욕을 다녀와 면도를 해드리면 마음이 개운합니다. 효란 손수 수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내가 직접 해야지 남을 시키면 웬지 불효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손수 길러주신 분인데 어떻게 남에게 당신을 맏길 수 있습니까? (만약 부인이 직장 여성인 경우에 부모님의 수발을 직접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요. 그러나 집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 다행이고, 그런 경우라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7번 가족의 부모부양 장남아들)

…저는 셋째인데 엄마한테 아단을 맞으면 할머니 곁에서 자던 생각이 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 제가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해요. 뚱냄새도 별로 안나더라고요. 웬지 불쌍하고 안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 결혼 후에 시어머니나 어머니가 아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잘할 자신은 없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사례 2번 가족의 중풍·치매 시부모 부양 손녀)

…비록 제가 하는 일이 어렵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내가 싫어하는 일도 되도록 안하고 삽니다. 저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이죠. 큰아이가 죽고 아들이 없어 대를 잊지 못할까봐 무척이나 걱정했습니다. 제가 장손이라 할머니께서 항상 아들을 원하셨거든요. 어려운 살림이지만 이번 아이가 딸이었다면 또 놓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6번 사례가족의 시조모 부양 중손자)

3) 가족결속도

효행자 개인의 효도관은 가족의 장에서 가족간의 역동성으로 현실화 되며, 구체적으로 가족의 결속도로 표현될 수 있다. 가족의 결속도를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때 우선 구조적 결속과 접촉에 대한 결속으로 이들 가족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가족중심으로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며,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집안의 대소사일을 맡게 되어 모든 친족의 일에 중심이 되며, 이들 친족의 부양도 함께하는 등 부모를 부양하는 일 외의 친족 일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피부양자나 가족과의 애정적, 규범적 결속을 보면 가족과의 상호성이 매우 긴밀하며 가족에 대한 의미가 매우 이상적이었다. 즉 가족에 대한 부양이나 효의 의미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치이며, 자신 또한 자녀들에게 당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가족간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역할의 상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집합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여 개인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며느리의 경우 친부모 관계는 아니지만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예우로서, 자녀들의 조부모로서, 함께 살아온 연장자에 대한 연민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용하였으며, 이들 가족의 자녀들도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나 효도관이 부모와 비슷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치감과 기능적 도움에 관한 결속도

를 보면 이들 가족은 가족간의 기능적 도움은 물론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이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특히 노부모 부양에 대한 상호성이 가족간에 일반화되어 있다. 즉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심리적 보상감도 이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높은 가족결속도는 가족원의 희생, 특히 주부양자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이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기대치 만큼의 상호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등과의 가족관계가 소원해져 있었다.

…13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집안일을 하는 어려움에서도 한번도 뛰쳐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힘이 들어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에 감사드려요. 우리 어머님 무척 까다로우셔요. 처음에는 많이 울었죠. 함께 산다는 건 정이 드는 건가봐요. 요즘에는 나이드셔 기력이 없는 걸 옆에서 보면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1번 가족의 95세 피부양자의 며느리, 효행자 본인)

…지금 내생활을 남들이 보면 지옥이라고 해요. 친정어머니가 시부모를 시설에 맡기라고 하지만… 거꾸로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올케가 시설에 맡긴다면 내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했는데, 떳떳하지 못할것 같아요.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죽는다면 남편이 살아서 겪어다니고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나중에 잘해주겠다고 하면 힘들었던 것이 좀 나아져요…(사례 3번 가족의 중풍·치매 시부모 부양 며느리, 효행자 본인)

…시할머니하고 시어머니가 시집오자 부터 함께 살았어요. 내가 막내 시누를 젖먹여 키웠죠. 우리가 먼저 살길을 찾아 시골에서 서울로 와서 장사할때 막내를 업고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커서 왔지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시어머니, 시할머니 우리아이들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힘들거예요. 자기를 살기도 힘든데, 부모는 물론이고, 조모, 증조모 까지 돌보려니 살림이 말이 아니예요. 얼마

전까지 19평에서 한집에 4대가 살았는데 내가 어떻 게든지 나가라고 했어요. 잡이라도 떨어져 자면 좀 나을까 해서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며느리에게 할 머니 대소변 수발하라고 안해요. 남편 도와 장사하는데 어떻게 수발까지 하라고 해요. 이일은 내일이고 내가 해야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자기 가족끼리 친구들과 어울려 한번도 놀라가지도 않고 가까이서 사는 것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사례 6번 가족의 108세 시모부양 손자며느리, 효행자의 배우자)

가계도(Genogram)를 통해 세대간 전이를 보면 이들 가족은 세대를 걸쳐 노부모 부양을 하고 있으며, 효행자가 있거나 효행동을 보면서 자라왔다. 부모가 조부모를 부양하여 조부모와 함께 어린시절을 보냈으며, 형제자매가 많은 것도 이들 가계의 특성이다. 독자나 장남외의 아들인 경우에도 당연하게 부양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신도 3세대 가족을 이루고 있거나 원하고 있다. 특히 며느리의 경우 그들의 시모가 비슷한 상황에서 시조부모를 부양하거나 시모도 효행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원가족에서도 부모·형제를 부양해오면서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며, 현재 원가족에서도 자신의 부모를 다른 형제가 직접 모시고 부양하고 있었다. 또한 가계의 내력도 비슷하여 부모, 형제 중에 이혼을 경험하거나 가족을 유기한 경험이 없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이 모두 함께 해온 경험들을 갖고 있다. 노인 질환에서도 세대적 전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관계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었다.

…가족이요, 뭐라할까 그냥 나누는 거죠. 저희 친정이 8남매예요. 어려운 형편에서 저는 초등학교 밖에 못나왔죠. 하지만 어머님이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구마를 먹을 때도 지금 함께 있지 않은 형제의 것은 꼭 남겨두고 먹었어요.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나누죠.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저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제가 손주를 잘 길러줄 수 있도록 요즘엔 공부도 한답니다. 제 손주인데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길니까?

(사례 1번의 95세 시모부양 며느리, 효행자 본인)

…힘들지만 함께 사는 거 당연하죠.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할머니와 참 사이가 좋았어요. 결혼하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했죠. 저희 시부모님 그동안 따로 지내시다가 고령이 되어서 함께 살기 시작하셨죠. 제가 몸이 불편해 오히려 우리 어머님이 시집살이하세요. 아버님 아프실 때도 어머님이 손수 수발하셨어요. 저는 심부름만 했죠. 제가 아플 때 우리 남편이 고생했어요. 평생 아프니 항상 “뭐해줄까?” 그러죠. 시부모님께서도 항상 도와주라고 늘 그러셨습니다 고마워셔요. 어렵지만 조금씩 보답하고 살려고 합니다…(사례 4번 가족의 95세 시모부양 며느리, 효행자 본인)

…시댁에서 모두 교회에 다니시는데 저희 남편만 나 가지 않아요. 저희 남편이 둘째이고 그 위에 선교활동으로 미국에 계시는 형님네가 있는데, 가족을 뒤로 하고 자신 형님이 노여워 그런데요. 가족을 버리고 무슨 남을 도울 수 있느냐 하는거죠.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저희가 있기 때문에 형님께서 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부모님한테 참잘하셨네요. 장남으로 교사생활 하면서 밑으로 동생들을 모두 공부시키고 출가를 시키셨네요. 지금도 고모님들을 공부시키지 못하신것을 후회하셔서 저희 시누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버님은 항상 가족을 작은아버지나 고모님들 그리고 저희 형제들 모두를 포함시켜요. 가족은 함께 나누는 거라고 하시죠…(사례 8번 가족의 89,90세 조부모부양 손자며느리, 효행자 며느리)

저희 시어머님이 효부상을 타신 분이세요. 개인적으로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시할아버님 병수발을 드시고 이제는 당신께서 아프시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애들 아빠가 항상 어머니 사랑을 하셨어요. 형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나마 조카가 성장하여 제사를 받들게 된 것도 모두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 애들 아빠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5번 83세 시모부양 며느리, 효행자 본인)

4) 심리적 만족감

연구문제 II-2에서 효행자가족의 적응을 심리적 만족감을 중심으로 정서적 상태와 전반적인 만족감, 그

리고 우울정도를 면접 한 결과 자신의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자신의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었다. 특히 가치있고, 충만하며, 보상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울감에서는 우울하거나 의욕이 없다고 하여 잠재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힘들어 하고 있었다. 또한 면접 중에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며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효행자 가족의 적응에서 이들 가족이 갖는 여러 어려움이나 부양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족이 갖는 부양보상감은 매우 뚜렷하여, 가족내에서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게서 얻는 만족감이나 친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얻는 지위부여감은 이들 가족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장남의 경우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종가의 일을 맡는 등 가족내에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는 개인적 지위를 얻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효행자 가족의 경우 사회적으로 효행상을 수상하는 등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어 이들의 보상감은 더욱 뚜렷하였다.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도 오랜 부양생활 속에서 어느정도 적응하고 인내하고는 있으나 항상 부담감을 갖게 된다. 즉 적응은 하지만 최상의 만족은 아닌 상태이다.

…제 아들내외가 몇달전에 일본지사에 나갔는데 며칠전 전화로 그러더군요. 비행기표를 보내드릴테니 아버지와 함께 꼭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기쁩니다. 시부모님도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부모님께 열심히 하는거 그래서 좋은 가봐요…(사례 7번 가족의 시부모 부양며느리, 효행자의 배우자)

…많이 울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참고 사니까 이렇게 상도 받고, 평생 제가 상을 어떻게 타보겠어요. 저희 남편도 지난번에 상을 탔는데 이웃에서 유지 역할을 해요. 이번 주택조합일에서 조합장 일을 맡게 되었죠. 동네에서 다음 번 구의원으로 나가라고 들 한답니다. 며느리는 대학을 나왔지만 며느리한테도 뜻밖해요. 제일 뿌듯한 것은 아이들 한테서 인정

을 받을 때예요. 저희 큰아이가 얼마전에 결혼을 하였는데 며느리에게 그러더래요. 나도 잘해줄테니까 우리엄마한테 잘해드리라고…(95세 시모 부양 며느리, 효행자 본인)

…처음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어머님이 저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시집살아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거예요. 말씀은 안하시지만 제게 고마워하시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침 새벽기도에 남편과 함께 가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려요. 제가 해낼 수 있게 해주셔서요.. 흥미롭지는 않죠. 뭐가 흥미로울게 있겠어요. 하지만 아주 불만족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변화한다는게 행복해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 나만이 견딜수 있고 또 능력을 주실거예요. 하지만 힘들죠. 어느날은 이불을 쓰고 한참 울기도 하고…(사례 3번 가족의 중풍·치매, 시부모부 양 며느리, 효행자 본인)

…시집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제게 살림을 맡기시더군요. 우리집 식구라고 인정해 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뭐든지 제게 맡기셨습니다. 저희 애들 박봉에 다들 대학공부시켰고, 우리 애 아빠 공부해서 사무관시험에 합격했죠. 저보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지난번 효행상을 받은 복지체단에서 일가 친척들 모두에게 서울구경을 시켜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뿌듯하더군요. 저로 인해 다른 식구들까지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평생 힘들었던 일들이 모두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외도를 하셨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시조모님을 지극히 모셔서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 지금까지 외도안하고 살아요. 시누들도 그저 고맙다고 하고.. 우리 큰딸 시집가서 엄마하듯이 하면서 산다고 하더군요. 사돈하고 처음 인사하는데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하니까 그다음은 볼것도 없다고 하면서 결혼을 승낙하더군요. 얼마전 다니던 절에서 여러신도들에게 제이야기를 스님께서 해주셨어요. 보살행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사례 2번 가족의 시부모 부양며느리·효행자 본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도 행복해요. 우리 손자도 이렇게 크고, 딸네도 모두 편안들 해요. 내가 복이 많죠.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인지 우리집

모두 어렵게는 살지만 시동생들 모두가 우리 부부를 부모같이 여기고 항상 대접해 줘요. 뭐 내세울게 있어서 대접을 받겠어요? 아직도 형님이 한마디 하시면 모두들 어려워 하죠. (사례 6번 가족의 시조모, 시모 부양 며느리, 효행자의 배우자)

…나쁘지는 않아요. 글쎄 만족 합니다. 두 부모님 그래도 이렇게 모실수 있으니 말이예요. 그리고 아이들 모두 잘자라 주고, 큰아이는 이렇게 어려운때 외국지사에도 나가게 되었으니 다행이죠. 보람있어요… (사례 7번 가족의 80세 부모 부양 아들, 효행자 본인)

…저는 중학교 밖에 못나왔는데 아이들은 아주 공부를 잘해요. 큰애도 혼자서 대학에 가고, 둘째도 고3인데 상위권이예요. 남편이 항상 노력하니까 그런가 봐요. 뿌듯해요.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 두 부부 잘살아갈 수 있고 아이들도 잘 될것 같아요. 요즘 한약방에서 약을 짜다 보면 콧노래가 나올때가 있어요. 이제는 건강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런데도 눈물이 자꾸나오고 속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사례 5번 가족의 중풍 시모 부양 며느리, 효행자 본인)

…어머니를 뵈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 속에서 힘들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장사 때문에 그려기도 하지만 저희 아이들 일부러 낮에는 할머니 댁에서 놀게 합니다.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할머니 세분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는 가를 본다면 절대로 나쁜 짓 못하고 살거예요. (사례 6번 가족의 시조모 부양 증손자, 효행자의 아들)

피부양자인 경우 노령이거나 현재 중풍, 치매등으로 직접 대화하기가 어려웠지만, 면접이 가능한 3가족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부양을 받고 있다고 하였으나 고령의 나이로 몸이 아프다고 하였으며, 밖에 나가거나 개인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치매나 중풍의 경우 최소한의 수발은 받고 있지만 최적의 상태는 아니었다. 즉 중풍에 대한 재활치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치매의 경우 외출시 밖에서 문을 잠그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와병노인을 수발하는데 필요한 가정설비나 의료기기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병상의 등급에 따른 처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내가 먹고 싶은것 며느리가 사다주고, 돈 있어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걱정 하나도 없지. 하지만 나이들고 나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게 참 불편해. 이곳, 저곳 아픈 곳도 많고 (사례 4번 가족의 90세 피부양자 본인)

…며느리가 잘해주지. 하지만 우리 손주가 얼마나 나를 예뻐 하는지 몰라. 올때마다 먹을 것 사다줘. 손주 며느리도 오면 겨안고 뾰뽀하고, 손주가 가장 보고 싶어… (사례 1번 가족의 95세 피부양자 본인)

…우리집의 모든 일은 우리 큰아들이 알아서 해.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이라면 믿을만하지. 부모한테 잘하고 사는데 그저 고맙지. 며느리가 사고를 당해 부어라 말할 수가 없어. 우리라도 아프지말아야 하는데. (사례 8번 가족의 90세 피부양자 본인)

이상에서 효행자가족의 심리적 만족감을 분석한 결과 부양행동의 장기화로 어느정도 적응이 이루어져 부양 부담감이 직접적으로 심리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관찰을 통해 본 결과 최상의 적응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피부양자가 와병노인인 가족이 5가족이나 되어 직접적인 면접의 어려움으로 구체적인 분석이 어려웠다.

V. 결론 및 논의

효행가족은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부양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의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인정하는 효행자에 대한 기준은 매우 이상적이어서 실제로 가족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부양이 한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고, 10년 이상의 장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김명자·김수연, 1999).

본 연구에서는 어려운 부양상황을 지속할 수 있는

효행가족의 적응기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효행상을 수상한 효행자 가족 중에서 도시에서 거주하며, 잠정적인 3세대 가족을 이루는 8가족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였다. 그동안 효행자에 관한 논문들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효행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적인 특성은 물론 친족이나 이웃, 사회제도적 특성을 포함하며, 해석적이고 질적인 연구를 통하여 부양행동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가족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행자가족의 부양행동은 특별한 행동이라기 보다는 일반 노인부양가족과 비슷하며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부양행동이 한 가족에게 집중되어 장기화 되며, 효행자 개인은 물론 모든 가족원이 심적 부담을 갖으며 가족원들의 희생이 따르게 된다.

둘째, 효행자 가족은 동거를 기본으로 하는 3세대 가족으로 가족결속도가 매우 높고 집합적 가족주의 성향을 띠며,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 가계도를 분석한 결과 효행은 세대를 통해 전수되고 있으며, 가족의 친밀성이 함께 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무모와 손자녀간의 친밀성이 매우 밀접함을 알 수 있다.

세째, 생태도를 분석한 결과 비가족원인 형제, 자매나 친족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이고 계획적이기 보다는 간헐적이고 임시적이어서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을 덜어줄 수는 없다. 그러나 종교적 믿음이 강하며 종교활동을 비교적 활발히 하고 있었다.

네째, 효행자가족의 부양은 의료기기나 부양을 위한 제반 주거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더욱 어려우며, 가족중심 부양이므로 사회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효행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상도 매우 미비하며, 외병노인 부양에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효행자가족 부양의 어려움은 노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적 측면보다는 도구적인 어려움이 크며, 특히 주부양자인 여성의 서비스 부양 역할부담이 매우 커서 다른 가족원들에 비해 어려움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나 배우자등 가족으로부터

얻는 심리적 보상감이 뚜렷하며, 자신에 대한 신의와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효행자 가족의 대처행동은 서로 비슷하며, 수용적 대처행동이나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데 비해 정서적 대처행동을 적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상황변화가 어려운 부양현실 속에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효행자가족의 심리적 만족감은 가족으로부터 얻는 심리적 보상감이나 사회정서적 지원인 효행상을 받은데 대한 가치나 보람으로 비교적 높기는 하지만 우울감도 함께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효행가족의 적응기제에 관한 질적인 연구로 어느정도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진 가족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다른 외병노인 가족들과의 비교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3세대 가족의 비율이 작아지기는 하나 외병의 고령 노인들이 증가하게 되며, 한국적 정서하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이들 노인부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가족부양을 기초로한 도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효에 대한 가치를 사회정서화 함에 있어 개별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정서적인 보상제도가 국가적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의료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네째, 피부양자인 노인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 부양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며, 피부양자의 형제, 자매 관계나 효행자의 형제, 자매등 친족에 대한 면접이 보충되어 친족과의 관계를 보충하여야 하며, 장기 노인부양 가족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족의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5).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 _____. (1996). 노년기 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방안모색. *숙대생활과학연구소*, 4-17.
- _____. (1996). 노부모 부양 현대노년학. *건강생활과학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230-250.
- 김명자·안선영(1996). 신세대부부와 중년기부부의 효도관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6), 113-125.
- 김명자·김수연(1999). 효행자가족의 특성 및 부양행동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03-120.
- 문소정(1995). 가족이데올로기의 변화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329-367.
- 박재간(1995).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
- 성규탁(1995). 부모부양의지의 비교문화적고찰. 박재간외. 고령사회의 위기와 도전.나남출판.
- 송현애.(1993). 며느리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박사학위논문*.
- 옥정희(1996). 중년기자녀의 노부모부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 유계숙(1998). 전생애를 통하여 본 부모-자녀 애착에 관한 이론적 쟁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1.
- 이광규외(1996). 가족의 관계역동성과 문제인식. 아산재단 연구총서 29, 집문당.
- 전영주(1998). 삼세대가족의 정서체계역동성과 성인자녀의 우울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22-45.
- 최정혜(1994).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4(2), 25-36.
- 통계청(1998). 한국인의 사회지표.
- 한국노인복지회(1996). 재가노인복지사업 -이론과 실제-. 홍익제.
- 홍숙자(1997). 고부교육프로그램의 실제.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 Aldous (1996). Elderly Couples and the End of the Family Career. *Family Careers*. SAGE 179-194.
- Allen & Perkins(1995). *The Future of Family Care for Older People*. London:HMSO.
- Devries,H.M. et al(1997). Patterns of Coping Preferences for Male and Female Caregivers of Frail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Vol 12 (2), 263-267.
- Hayes. B.C. & Pittelkow.Y(1993). Religious Belief, Transmission and the Family: An Australian Study. *J. of Marriage and Family* 55(August), 755-766.
- Keith, C.(1995). Family Caregiving Systems; Models, Resources and Values. *J. of Marriage and Family* 57(February), 179-189.
- Kuypers.J.S & Bengtson, V.L(1983). Toward competence in the older family. Brubaker(Ed), *Family relationship in later life*, 211-228.CA; SAGE.
- Markiewicz et al(1997). An Exploration of Attachment Styles and Personality Traits in Caregiving for Dementia Patients. *J.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5(2), 111-132.
- Miner(1995). Racial Differences in Family Utilization Among Older Persons: Annonrecursive Model. *J. of Gerontology* 50B3, S143-153.
- Gatz,M. et al(1990).Caregiving Familie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3rd. J.E.Birren & K. W.Schaie. Academic Press Inc NY. 404-426.
- HaeKyung Choi(1993). Cultural and Noncultural Factors as Determinants of Caregiver Burden for the Impaired Elderly in South Korea. *The Gerontologist* Vol 33(1), 8-15.
- Holahan et al (1997). Social Context,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An Expanded Model With Cardiac Patient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4), 918-928.
- Gubrim & Sankar (1994). Qualitative Methods in Aging Research. SAGE.
- Strauss & Corbin (1990). Basic of Qualitative

- Research;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Sage.
- Pyke,K.D. & Bengtson,V.L.(1996). Caring More or Less;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 Systems of Family Eldercare. *J. of Marriage and Family* 58(May), 379-392.
- Kling, K.C. et al(1997). Distinctive Late-Life Challenges: Implications for Coping and Well-Being. *Psychology and Aging* 12(2), 288-295.
- Pruchno,R.A et al(1997).Coping Strategies of People Living in Multigenerational Households: Effects on Well-Being. *Psychology and Aging* 12(1), 115-124.
- Pillemer & Suiter(1996).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Caregivers on Person with Alzheimer's Disease.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Pierce.G.R et al Plenum-Press, 467-494.
- Coward, R.T. et al (1992). Gender, Families and Eldercare. Newbury Parkm. CA: Sage, 18-33.
- Mathews,S.H.(1995). Gender and Division of Filial Responsibility Between Lone Sisters and Their Brothers. *J. of Gerontology* 50B(5), s312-320.
- Yoon-Ro,L & K.T.Sung(1998). Cultural Influences on Caregiving Burden: Cases of Koreans and Americans.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6 (2), 125-141.